

不憂軒과 紅塵의 양면성*

-丁克仁 문학의 장소성을 중심으로

최상은**

<차 례>

1. 머리말
2. 즐겁다면서 근심하는 장소 ‘불우현’
3. 배척하면서 지향하는 장소 ‘홍진’
4. 마무리

<국문초록>

이 글은 장소성을 중심으로 정극인 문학의 작품세계를 밝히기 위하여 ‘불우현(不憂軒)’과 ‘紅塵(홍진)’을 핵심어로 상정하고 논의를 진행했다. 정극인은 걱정 없이 지역민들과 같은 이념의 공동체로 함께 살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했다. 그런데 그의 작품들을 검토해 본 결과, 관념적 이념과 추상적인 흥취만 드러나 있지 구체적인 지명이나 지역민들과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나 경험은 없었다. 정극인은 ‘불우현’의 이념적 테두리 안에서 혼자 고답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다. 따라서 ‘불우현’은 그의 이념실현의 장소이기는 하지만 공동체를 바탕으로 자기 정체성을 찾지는 못했다는 점에서는 관념적·추상적 공간이기도 하다. <상춘곡>의 ‘홍진’은 배척받는 공간인 듯하지만 지향하는 장소이고, ‘산림’은 고향처럼 살아가는 진정한 장소인 것 같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홍진’을 지향하고 있고 경험적 삶과는 멀찍이 떨어져 있는 동경의 세계로서 관념적·추상적 공간으로 비쳐지기도 하는 불완전한 장소이다.

* 이 논문은 상명대학교 2013학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상명대학교

사대부들의 이상은 수기치인의 완전한 실현에서 오는 것이고, 그 이념의 실현 후 ‘불우’의 삶을 살 수 있는 곳이 그들의 장소이다. 그런데 ‘불우현’과 ‘홍진’의 장소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볼 때, 정극인은 전형적인 사대부로서 수기치인의 이념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한평생을 성실하게 생활했지만 반쪽의 목표 달성에 그침으로 인해 어디에도 안주하지 못하고 고민하면서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정극인은 산림에 묻혀 지냈지만 강렬한 관인 지향적 성격을 지닌 인물이었다.

핵심어 : 불우현, 홍진, 산림, 장소성, 이념, 현실

1. 머리말

정극인(1401~1481)은 정읍 태산 아래 시냇가에 초가삼간을 지어 이름을 ‘불우현’이라 붙이고 이를 자신의 호로 삼아 일생을 한가롭게 살고자 했다. 그리고 <상춘곡>에서는 번잡스러운 ‘홍진’에 묻혀 사는 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자신의 생애가 어떠하냐고 과시했다. 정극인이 굳이 자신의 호에서까지 ‘근심없음’을 강조하고, 정치현실을 하찮은 먼지에 비유한 진의가 무엇일까? 이 두 단어의 함의를 파악함으로써 정극인 문학의 성격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정극인은 벼슬로 현달한 사람은 아니다. 호남에서 유일하게 사간원 정언에 임명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할 정도였다. 그렇지만 벼슬에서 물러나 있을 때는 훈도로서 시골 아이들 교육에 힘썼고 향음주례를 마련하여 백성들의 삶의 규범을 세웠으며, 80세에 이르기까지 시정의 폐단을 고하는 상소문을 올리는 등 사대부의 이념실현을 위하여 성실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정극인은 벼슬자리에 있을 때나 물러났을 때나 현실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어서 기회가 있을 때는 벼슬에 나가기도 했고 상소를 올리기도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사할 무렵에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상춘곡에서는 정치현실을 ‘홍진’에 비유했다.

그리고 성균관에서 공부하면서 대과를 준비하다가, 기근이 심한데다 농한기가 아닌데도 세종이 홍천사 중건을 위한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이고 승려 行乎의 비행이 자심해지자 성균관 유생들과 함께 상소문을 올려 항변하였다. 이 일로 정극인은 죽을 위기를 넘기고 귀양을 갔다가 풀려나 정읍으로 돌아갔다. 성균관에 오래 머물고 있으면서도 대과에 오르지 못했고 상소 사건으로 위기를 가까스로 면한 상황이었다. 말하자면 정극인의 생애에서 가장 힘들고 근심이 많았을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처할 집과 자신을 ‘불우현’이라 이름하였다.

그 동안 정극인 문학의 주제에 대한 연구는 주로 <상춘곡>과 <불우현곡>을 중심으로 하였고 한시에 대한 연구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들 작품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경향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홍진에 비유하여 정치현실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산림에 묻혀 한가롭게 살아가는 자신의 안빈낙도의 이념 실현을 자랑스럽게 노래한 작품으로 본 경우이다.¹⁾ 둘째, 정극인이 만년에 이르기까지 정치현실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 그러한 관심과 현실에 대한 불만을 산림에서의 흥취로써 역설적으로 표현했다고 보기도 한다.²⁾ 셋째, <상춘곡>의 추상성에 착안한 연구도 있다. <상춘곡>

1) 정재찬, 「담화 분석을 통한 가사의 장르성 연구」, 『선청어문』 제21집, 서울대 국어교육과, 1993, 212~221쪽.

윤석산, 「<상춘곡> 구조 연구」(1998), 『고전문학연구』 제13집, 한국고전문학회, 1998, 69~91쪽.

한창훈(1999), 고전시가 교육론 서설, <백록어문> 제15집(제주대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109~123쪽.

2) 김광조, 「강호시가의 작중공간 설정과 의미」, 『한국시가연구』 제23집, 한국시가학회, 2007, 118~125쪽.

박경주,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 경기체가 장르의 정서 변화에 대한 고찰」, 『고전문학과 교육』 24,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2, 8~81쪽.

에 나타나는 산수의 미나 안빈낙도는 당시 강호시가의 보편성으로 볼 수 있다. 작품에서 그 보편성을 전형화해서 보여줌으로써 작가나 독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획득할 수 있게 해 주며, 그렇게 함으로써 <상춘곡>이 강한 호소력을 지니게 되어 광범위하게 유통될 수 있었다고 했다.³⁾

첫째·둘째 연구의 경우, 관인과 처사 사이에서 고민하는 작가의식을 면밀하게 살핌으로써 정극인 문학의 성격을 다양하게 밝혀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렇지만 김대행이 지적한 것처럼, 지금까지 강호시가의 연구가 지나치게 사회 역사적 시각에 한정되어 있는 점⁴⁾을 부인할 수 없는데 위의 첫째·둘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셋째의 경우, 사상적 미학적 측면에서 <상춘곡>이 지닌 강호시가로서의 보편성과 전형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렇지만 정극인이라는 작가의 실제적인 삶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어떤 경우이든 정극인 문학의 성격을 밝히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첫째·둘째의 경우는 작가의 실제적인 삶을 통한 작품의 개별적 성격을, 셋째의 경우는 당시인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관념을 중심으로 한 작품의 보편적 성격을 밝혀 주었다. 개별성과 보편성의 구명, 이것은 문학 연구가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지향점일 것이다.

필자는 정극인 문학의 성격을 밝혀 줄 수 있는 핵심어는 <불우현곡> 등 여러 작품에 등장하는 ‘不憂軒(불우현)’과 <상춘곡>의 ‘紅塵(홍진)’이라고 본다. 불우현과 홍진은 정극인 문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작품 배경이다. 불우현과 홍진은 정극인의 삶과 의식이 짙게 반영되어 있는 비유적 명칭이다. 즉, 두 곳은 실재하고 있는 객관적이고 물리적 공간 그 자체가 아니라 작품 화자의 삶과 직결된 경험과 정서, 이상과 현실에 대한 의식이 배어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이 두 공간의 의미를 보다 면밀하게 구명하기 위하여 인문지리학의 ‘장소’ 개념을 도입하여 논의

3) 김대행, 「상춘곡 : 추상의 의미」, 『고시가연구』 제5집, 한국고시가학회, 1998, 1~15쪽.

4) 김대행, 위의 글, 79쪽.

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공간은 형태가 없고, 손으로 만져 볼 수도 없고 또 직접적으로 묘사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실체가 아니며 우리가 어떻게 공간을 느끼고 알고 또 설명하더라도 거기에는 항상 장소감이나 장소 개념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간이 장소에 맥락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간은 그 의미를 특정한 장소들로부터 얻기 때문에 공간의 의미는 장소성을 통해서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⁵⁾

그리고 장소성은 작가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결정되기도 하겠지만, 거시적으로 볼 때는 작가가 속한 계층이나 사회의 이념이 장소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본다. 이념은 개인의 삶을 영위하는 가치이며 지침이기 때문이다.⁶⁾ 위에서 제시한 정극인의 문학의 두 핵심어, 불우현과 홍진의 장소성에 대한 분석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불우현과 홍진은 정극인이 실제로 몸담았던 장소이고 그의 삶과 의식이 녹아들어 있는 장소이다. 하지만 두 장소에 대한 정극인의 의식은 매우 다르다. 매우 다른 장소성을 지닌 두 핵심어에 대한 이 글의 논의는 정극인 문학의 개별성과 보편성을 밝히는 데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2. 즐겁다면서 근심하는 장소 ‘불우현’

정극인은 40대에 불우현을 짓고 71세에 <不憂軒記(불우현기)>를 썼다. <불우현기>의 내용을 몇 단락으로 나누어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집의 이름을 불우현이라 이름한 것은 근심없이 한가롭게 살고자 함이다.

5) 에드워드 렐프 저,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옮김,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39쪽에서 요약·정리한 것임.

6) 최상은, 「고전시가의 이념과 현실, 그리고 공간과 장소 의식 탐색」, 『한국시가연구』 34집, 2013, 7쪽.

- ② 요순과 공맹은 시대를 구제하기 위하여 근심했다.
- ③ 태산군의 거사는 학문이 깊고 성현을 사우로 삼았다.
- ④ 거사는 이단을 물리치는 상소를 올려 이념을 바로잡고, 과거에 합격하고 원종공신에 드는 등 임금의 은혜를 입었다.
- ⑤ 여러 번 문신의 직책에 역임했으나 양전관과 교수는 유림으로서는 쓸데 없는 것이었다.
- ⑥ 부귀영화를 뜯구름이나 헌신짝처럼 여기고 자연과 더불어 혼연히 한가롭게 살아간다.
- ⑦ 시골에서 인륜을 돈독하게 하고 세상일을 끊고 살아가니 무슨 근심이 있겠는가.
- ⑧ 부귀를 버리고 빈천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자, 바로 불우현에서 사는 사람이다.⁷⁾

서두인 단락①에서는 집의 이름을 불우현이라 한 것은 근심없이 한가롭게 살아가고자 함이라고 했다. 그런데 단락②에서는 요순 공맹의 ‘도를 행하고 시대를 구제하기 위한 근심’을 언급하고 단락③에서는 그런 성현을 스승 삼는다고 했다. 단락②③은 정극인 자신의 삶의 이념적 근거를 요순 공맹에 두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단락④⑤에서는 본인의 벼슬살이를 회고하였다. 단락⑤에서는 일부 직책에 대한 불만이 나타나 있지만 대체로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이 배어있다. 자신의 벼슬살이는, 요순과 같은 인재를 갈망하는 임금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함이었고 공맹이 시대를 구제하기 위하여 더딘 행차를 했던 것에 비유할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런데 또 단락⑥부터는 전혀 상반된 내용으로 전환되었다. 단락⑦⑧에 이르기까지 벼슬살이를 헌신짝처럼 여기고 안빈낙도하면서 근심없는 不憂(불우)의 삶을 살려는 의지를 얘기했다. 단락①과 단락⑥⑦⑧을 수미상응하게 구성한 것은 ‘불우’의 삶에 대한 의지가 확고함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7) 이 글에서 인용하는 정극인의 작품은 ‘정극인, 김익두·허정주 옮김, 『不憂軒集』, 문예원, 2013’에 실린 번역본과 영인본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작품 인용 각주는 생략한다.

요순 공맹을 스승 삼아 벼슬살이를 했으면서 서두와 결말에서 정치현실을 뜯구름처럼 생각하고 헌신짝처럼 버리겠다고 한 것은 모순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유가 사대부인 정극인의 삶을 통해서 볼 때, 벼슬길에 나간 이념적 근거를 요순 공맹에서 찾았듯이 벼슬에서 물러난 이념적 근거 역시 공자의 “지혜로운 사람은 미혹되지 않고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않으며 용기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⁸⁾에서 찾아 집 이름을 불우현이라 한 것 같다.⁹⁾ 벼슬길에 나가고 물러나는 모든 행위가 修己治人(수기치인)이라는 유가적 이념실현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불우현기>는 정극인이 71세에 치사한 이듬해에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안빈낙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힌 글이다. 그런데 단락 ⑦에서 “벼슬길의 무상한 부침 소식을 듣지 아니하니, 어찌 세도의 오르내림을 알 것인가.”라고 정치현실에 대한 관심을 끊고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강한 어조로 표현했으면서도 그 후 80세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정치현실의 여러 가지 폐단을 바로잡아 달라는 상소를 올린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극인의 행보를 통해서 볼 때, 단락⑥ 이후에 보이는 도가적 현실부정은 역설이다. 치사 후 안빈낙도는 사대부들의 일반적인 소망이었는데 정극인도 표면적으로는 그런 것 같지만 속마음은 정치현실에 가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불우현의’ ‘불우’는 정극인의 진심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처가이지만 오랜 동안 머물러 살면서 불우현을 지었고 치사 후 물러나 일생을 마친 정읍이 정극인에게는 정서적으로 고향과 다름없는 장소였을 것이다. 정극인은 29세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성균관에 유학, 20년 동안 여러 번 대과에 응시했으나 실패하고 정읍에 내려가서 ‘불우현’을 짓고 이를 자신의 호로 삼았다. 집은 안식처로서 사람들이 가장 애정을 느끼는 장소이다.¹⁰⁾ 뿐만 아니라 그 집에 당호를 붙여 자신의 호로 삼은 것은 강

8) 『論語』「子罕」, “子曰 知者不惑 仁者不憂 勇者不懼.”

9) 이점은 <不憂軒曲> 5연에서 공자와 안연의 삶을 본받겠다고 하면서 후렴구에서 “偉不懼不憂景何叱多”라 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렬한 장소의식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극인이 불우현을 자신의 일생을 두고 거처할 장소로 인식한 것은 고을의 자제들을 가르치고 향약을 만들어 사람들을 교화함으로써 동질적인 이념으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공동체¹¹⁾를 형성한 데서도 알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정극인은 정읍에서 생을 마쳤고 정읍에 묻혔다. 그리고 후대에 정읍에 있는 무성서원에 배향되었다.

한편, 정극인은 주변의 권유로 53세에 대과에 응시하여 합격, 본격적으로 벼슬길에 나가게 되었다. <불우현기>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정극인은 늦은 나이에 벼슬살이를 시작해서 70세에 치사하고 물러났지만 치사 후에도 벼슬살이에 대한 강한 집념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말하자면, 벼슬하기 전에 집을 짓고 불우현이라 이름하고 치사 후에 <불우현기>를 써서 ‘不憂(불우)’에 대하여 강조한 것은 역설적으로 ‘憂(우)’를 드러내는 결과가 된 것이다.¹²⁾

참고로 정극인이 자손들을 위해 쓴 <子孫誡(자손계)> 한 대목을 보자.

나는 다행히 사마시에 급제하였으나 20여 년 동안 성균관에서 음식을 축내었으나 내 운명에 어긋남이 많아 과거시험에 누차 떨어지고 공복에 돌아와 누워 지내며 종신토록 이렇게 지낼 것처럼 산 지가 여러 해 동안이었다. 그러다가 신미년 겨울 문종 임금 시절에 ~ 광흥창 부승직에 임명되었으니 이 또한 옛것을 자세히 살핀 학문의 힘이었고 우리 집안 근고에 일찍이 없었던 성대한 일이었다. 너희들은 모두 나이가 아직 20세가 되지 않았으니 이제 열심히 학문에 힘써서 총명을 개발한다면 공경과 장상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¹³⁾

10) 이-푸 투안 저, 구동화·심승희 옮김, 『공간과 장소』, 대운, 2007, 7~8쪽 참조.

11) 장소와 공동체의 개념에 대해서는 에드워드 렐프 저, 앞의 책, 2005, 5~87쪽 참조.

12) 정극인은 <詠懷>에서도 “천지간 기쁨만 있고 근심 아예 없어라(有喜無憂俯仰間)”이라고 하면서 ‘無憂’라 하였고, <致仕吟>에서는 “내 몸엔 이제 사뭇 한 점 티끌도 없어라(身上都無一點塵)”이라고 하면서 ‘無一點塵’이라 하였다. 특히 “임금님 화롯불 향기 아직 내 옷에 남았다(御爐香惹衣冠在)”고 하면서도 ‘한 점 티끌도 없다’고 강조한 것은 그 속뜻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성균관에 머물면서 과거 준비하던 시절의 괴로움과 끝내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고 정읍으로 돌아가 여러 해를 지내는 동안의 마음고생을 얘기했다. 그리고 과거에 나가기 전 50세가 되어서야 말직이나마 벼슬을 받은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르며, 그런 벼슬이라도 얻은 것은 학문에 힘쓴 덕분이라 했다. 그러면서 자손들에게 학문에 힘쓰면 공경장상도 될 수 있다고 했다. 성균관에서 과거 공부를 하다가 낙향해 있는 동안 평생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애 휩싸여 있었다. 이때에 불우현을 지어 근심을 잊고자 했지만 실제로 정극인에게 정읍은 외롭고 적막한 공간, 空谷이었다. 정극인은 불우현을 안빈낙도의 장소로 만들려고 했지만 마음으로는 불우현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¹⁴⁾

그러면 정극인의 시가 작품에 나타나는 ‘불우’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제목에 ‘불우현’이 포함된 작품을 보기로 한다. 7언절구 <불우현음>은 전형적인 안빈낙도의 노래이다. 그런데 <不憂軒歌(불우현가)>와 <不憂軒曲(불우현곡)>은 <불우현음>과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정극인이 72세 되던 해에 조정에서 정극인에게 벼슬자리를 주자고 천거했으나 나이가 너무 많다는 반대 의견 또한 많아서 성종은 한 발 물러서서 정극인에게 정3품 산관 벼슬을 주고 관찰사로 하여금 때마다 보살피라는 명을 내렸다. 정극인은 이 은혜에 감동하여 두 작품을 써서 감사의 뜻을 표했다. 먼저 <불우현가>를 보자.

浮雲似宦海上애

13) “余幸以無似 偶中司馬試 二十餘年竊食芹宮 命途多年 屢屈科第 退臥空谷 若將終身者有年矣 辛未冬 文宗朝-守廣興倉副丞 斯亦稽古之力 而近古未有之盛事也 若等年皆未冠 及是時 強勉學問 開發聰明 則公卿將相 寧有種乎”

14) 에드워드 렐프, 앞의 책, 95쪽. 렐프는 “한 장소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세상을 내다보는 안전지대를 가지는 것이며, 사물의 질서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확고하게 파악하는 것이며, 그리고 특정한 어딘가에 의미 있는 정신적이고 심리적 애착을 가지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정극인은 불우현을 안전지대로 생각하거나 불우현에 정신적·심리적 애착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事不如心 흔이
 하고만코 ㅎ니이다
 퇴고시라
 不憂軒翁 퇴고시라
 時致惠養 ㅎ신 口之於米 퇴고시라
 퇴고 퇴고시라
 三品儀章 퇴고시라
 光被聖恩 ㅎ신 馬首腰間 퇴고시라
 嵩三呼華三呼 ㄹ
 何日忘之 ㅎ리잇고¹⁵⁾

서두에서 정치현실을 뜯구름처럼 생각했음을, 벼슬살이가 여의치 않았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불우현옹’, 즉 근심없이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했다. 5행 이후에는 임금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랑하고 나날이 잊지 않고 은혜를 송축하리라 다짐했다. 서두에서는 우여곡절 많았던 벼슬살이에 대한 양금이 남아 있었음을 단도직입적으로 나타냈지만 치사한 자신에게 보여 준 임금의 은혜로 인해 그 양금이 말끔히 가셨다. 여기서 굳이 자신을 ‘불우현옹’이라 한 것은 단순히 자신을 가리키는 데 그치지 않고 근심없이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과시하고자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퇴고시라’의 반복은 넘치는 기쁨과 자랑하고픈 마음의 표현이다. <불우현가>는 치사 후 여의치 않았던 벼슬살이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는데 뜻밖의 성운을 입고 한껏 고양된 정서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것이 수기치인의 이념을 온전히 실현했을 때 느끼는 사대부의 즐거움이다.

그러면 이제 <불우현곡>을 살펴보자. <불우현곡>은 경기체가이다. 경기체가는 관인들이 연회에서 고양된 흥취를 노래하는 장르¹⁶⁾인데 치사한 정극인이 개인의 흥취를 경기체가로 노래했다는 면에서 흥미를 끈다. 경

15) 행 구분은 영인본의 구두점에 따른 것이다.

16) 한창훈, 「경기체가의 형성과 변모를 파악하는 하나의 시각」, 『백록어문』 제14집, 제주대 국어교육학과 국어교육연구회, 1998, 47~50쪽 참조.

기체가 후렴구에서 정서를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짜임새를 가지고 있는 만큼 각 연의 전·후절 후렴구를 제시하고 그 의미를 살펴본다.

1. 偉樂以忘憂景何叱多 / 偉遵道而行景何叱多
2. 偉諄諄善誘景何叱多 / 偉自遠方來景何叱多
3. 偉如釋重負景何叱多 / 偉再參原從景何叱多
4. 偉樂且有義景何叱多 / 偉祈天永命景何叱多
5. 偉不懼不憂景何叱多 / 偉古訓是式景何叱多
6. 偉過蒙褒獎景何叱多 / 偉聖恩深重景何叱多
7. 偉作此好歌消遣世慮景何叱多

먼저 후절의 후렴구에 담긴 내용을 살펴보면, 성현의 가르침에 따른 도의 실행(1,2,5연)과 임금의 은혜에 대한 송축(3,4,6연) 등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전자는 자신의 삶이 사대부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음을, 후자는 그런 삶에서 오는 이념적 성취를 과시한 것이다. 7연은 6년까지의 정서를 다시 집약했다. 7연을 보자.

樂乎伊隱底 不憂軒伊亦
 樂乎伊隱底 不憂人伊亦
 偉作此好歌消遣世慮景何叱多

이런 노래를 지어 부르며 시름을 잊을 수 있는 상황에 더 없는 흥취를 느끼는 어조를 느낄 수 있다. 자신의 정서를 ‘樂(락)’과 ‘不憂(불우)’로 표현했다. 근심없는 현실에서의 즐거움이 이상적인 즐거움일 것이다. 그런데 1연의 ‘忘憂(망우)’, 3연의 ‘重負(중부)’, 5연의 ‘不憂(불우)’ 등에 이어 7연에서만 ‘不憂(불우)’를 두 번 반복했고 ‘世慮(세려)’라는 단어까지 씬으로써 그 동안 정치현실에 대한 근심걱정이 정극인의 정서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게 해 준다. 치사한 선비로서 관인의 노래인 경기체가 형식을 빌어서 성은에 감사하면서 ‘불우현’을 연호한 것도 관인 지향적인 정극인의 한 단면인 것이다. 치사한 자신에게 뜻밖의

산관 벼슬이 주어지자 실제 관원이 된 것마냥 기뻐하면서 이 작품을 쓴 것이다. 말하자면, 수기치인의 이념실현이 이루어진 듯한 감흥을 느꼈던 것이다.

정극인의 의식과 정서를 좀더 살펴보자.

벼슬에서 물러나 읍조리며 사립문에 이르러
관을 걸어 놓고 다시 불우현에 기대었네
호남의 군현이 얼마나 되던가
쉴 세 고을에 한 사람의 정언이라네¹⁷⁾

벼슬길에 부침함은 본디 같은 근원이고
영욕은 서로 순환하여 함께 뿌리를 이루네
누가 알랴 자미화 아래 놀던 객이
한가함을 구하여 불우현에 크게 누웠음을¹⁸⁾

<치사음>과 <영회>의 일부분이다. <치사음>은 71세에 벼슬살이를 청산하고 물러나 자연으로 돌아가는 마음을 노래한 장시인데, 작품 서두에서 호남 유일의 정언 벼슬을 지냈다는 데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영회> 역시 물러나 한가롭게 살아가는 삶을 노래했지만 사간원에서 벼슬살이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치사음>에는 “임금의 화룻불 향기만 의관에 남아 있다¹⁹⁾”고 하면서도 “이 몸엔 모두 한 점 티끌이 없어라²⁰⁾”라고 하고, 결말에서는 “다만 몸과 마음이 아직 쇠하지 않았으니/나이를 줄여 다시금 흥진을 밟고 싶어라”²¹⁾라고 하여 벼슬살이에 대한 강한 집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영회>에서는 벼슬길의 부침과 영욕은 근원이 같다고 하고 ‘不憂軒(불우현)’, ‘無憂(무우)’ 등의 용어를 반복 사용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치사객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17) <致仕吟>, “致仕行吟到華門 掛冠還倚不憂軒 湖南郡縣知多少 五十三分一正言”

18) <詠懷>, “浮沈宦海本同源 榮辱相乘互作根 誰識紫薇花下客 求閑大臥不憂軒”

19) <致仕吟>, “御爐香惹衣冠在”

20) 위의 시, “身上都無一點塵”

21) 위의 시, “只有身心衰未了 縮年還欲踐紅塵”

치사 후에 지은 작품들을 살펴 본 바, 정극인은 몸은 정읍에 있었지만 마음은 서울을 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들 작품에 나타나는 흥은 불우헌의 삶에서 온 것이 아니라 관인의 삶에서 온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극인은 정읍을 평생 살아갈 장소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온전히 안착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극인은 이렇게 강호한정을 노래하면서도 벼슬살이에 대하여 큰 관심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벼슬살이의 흥취나 추억을 노래한 작품도 10여 편²²⁾이나 지었다. 이런 작품은 다른 작가에게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그의 나이 80세 되던 해에 三品散官(삼품산관)과 時致惠養(시치혜양)에 대한 임금의 은혜에 사례하고자 서울에 올라가 임금을 뵈고 시정의 폐단 몇 조목을 올리자 임금이 술을 하사하여 위로하고 격려하였는데 그때 돌아와서 말하기를 “이제 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한다.²³⁾ 이런 점들을 미루어 볼 때, 정극인이 지니고 있었던 평생 삶의 지향이 무엇이었고 정치현실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였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 건축물 ‘불우헌’의 장소성을 중심으로 정극인 문학의 성격을 논의해 보기로 하자. 건물 이름을 ‘불우헌’이라 한 것은 <論語(논어)> 子罕篇(자한)의 “知者(지자)는 미혹되지 않고 仁者(인자)는 근심하지 않으며 勇者(용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知者不惑 仁者不憂 勇者不懼).”²⁴⁾에 근거한 것 같다.²⁵⁾ ‘論語集註(논어집주)’에 의하면 이 문장의 의미는 “총명함이 이치를 족히 밝힐 수 있기 때문에 미혹되지 않고 이치로써 사욕을 이길 수 있으므로 근심하지 않으며 기운이 족히 도의와 짝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배움의 순서다.”²⁶⁾라고 했다.

22) <賀吳仲舉新格生員示洞中諸賢>, <寄朴承旨慶胤>, <次辛參判>, <寄丘崔楊鄭四博士>, <寄金府尹>, <寄盆城宰>, <驄馬契軸>1·2, <薇垣契會圖>, <憶分臺> 등.

23) 黃胤錫, <有明朝鮮國故通政大夫行司諫院正言不憂軒丁公行狀>, 김익두·허정주 옮김, 앞의 책, 62쪽 참조.

24) “子曰 知者不惑 仁者不憂 勇者不懼.”

25) <불우헌곡> 제5연 후렴구에서도 “偉不懼不憂景何叱多”라고 하였다.

정극인은 이러한 공자의 가르침에 따라 사적인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근심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자 불우현을 건축했다. 그리고 지역 사람들을 같은 이념의 공동체로 결속시키기 위하여 지역의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향약을 만들고 향음주례를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데 불우현을 노래한 작품들에는 ‘불우’의 이념이나 추상적인 흥취만 드러나 있지 불우현이 위치한 정읍 지역사회와의 연계나 거기 사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구체적인 경험이 없다. 다시 말하면, 거기 사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이나 살아가는 모습은 거의 나타나 있지 않다. 후대에 무성서원에 배향되는 등 지역민들의 추앙을 받기는 했지만, 정극인 자신은 오히려 불우현의 이념적 테두리 안에서 고답적인 삶을 살면서 마음은 서울에 가 있었던 것이다. 불우현에 살았던 정극인은 <상춘곡>에 나타나 있는 ‘혼자’의 정서에 젖어 있었던 것 같다.²⁷⁾ 그런 면에서 정극인은 안빈낙도하는 처사의 의식보다는 관인 지향적인 의식이 더 강렬했던 인물이었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정극인은 불우현을 근심 없는 仁者(인자)의 삶을 지향하는 장소로 만들려 했지만 온전히 자기 장소화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진정한 장소감이란 무엇보다도 내부에 있다는 느낌이며, 개인으로서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의 장소에 속해 있다는 느낌”²⁸⁾인데 정극인은 몸으로 생활했던 거주지는 불우현이었지만 의식은 외부 세계인 서울에 가 있었던 것이다. 그 이유는 정극인이 수기치인의 이념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한 데다 정치현실에 대한 집념으로 인해 현지인으로서의 삶에 녹아들지 못하고 이념의 세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26) 『論語』 子罕, 『經書』, 성대 대동문화연구원, 1980, 245쪽. “明足以燭理 故不惑, 理足以勝私 故不憂, 氣足以配道義 故不懼, 此學之序也.”

27) <상춘곡>에서 정극인은 “逍遙吟詠호야 山日이 寂寂흔디 閑中眞味르
ㄴ 알니 업시 호재로다”라고 했다. ‘혼자’의 정서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론할 것이다.

28) 에드워드 렐프, 앞의 책, 150쪽.

3. 배척하면서 지향하는 장소 ‘홍진’

<상춘곡>도 <불우현곡>과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두 작품은 작품의 성격이 판이하다. 한 작가가 비슷한 시기에 지은 두 작품이 상반된 작품세계를 보여주고 있다면 일단 관심을 가져 볼 만하다. 먼저 작품의 서두와 결말을 살펴본다.

紅塵에 못친분네 이내生涯 엇더흔고
 넷사름 風流를 미출가 못미출가
 天地間 男子몸이 날만흔이 하건마는
 山林에 못쳐이셔 至樂을 므를것가
 數間 茅屋을 碧溪水 얹피두고
 松竹 鬱鬱裏7)에 風月主人 되여셔라

功名도 날씩우고 富貴도 날씩우니
 淸風明月 外에 엇던벗이 잇스올고
 簞瓢陋巷에 핫튼혜음 아니흔니
 아모타 百年行樂이 이만흔들 엇지흔리

서두에서는 ‘풍월주인’인 시적 화자가 ‘홍진에 못친분네’에게 자신을 과시하고 있다. 홍진이 정치현실의 비유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홍진은 티끌로 가득하여 인간이 안주할 수 없는 공간, 피해야 할 공간이다. 서두에서 ‘홍진’은 표면적으로 볼 때, 시적 화자와 전혀 상관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추상적 공간이다. 그런데 시적 화자가 있는 곳은 벽계수를 앞에 두고 송죽 우거진 숲속 수간모옥이다. 이곳은 티끌 하나 없는 청정한 곳²⁹⁾으로서 안빈낙도하면서 한가롭고 편안히 깃들 수 있는 곳이다. 수간모옥은 시적 화자가 거주하는 집이다. “집이라는 장소는 사실 인간 존재의 토대이며 모든 인간활동에 대한 맥락뿐 아니라 개인과 집단에 대한 안전과

29) <致仕吟>에서는 “身上都無一點塵”이라 했다.

정체성을 제공한다.”³⁰⁾는 면에서 생각해 볼 때, 수간모옥은 시적 화자가 안착해 있는 편안한 장소이다. 두 곳을 대조법으로 표현함으로써 홍진과 산림에 대한 풍월주인의 의식을 선명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 옛 사람과 비교해도 자신의 풍류가 미치지 못할 게 없다고도 하고, 천지간에 하고많은 남자 중에 나만한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면서 최고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자신을 ‘풍월주인’이라 했다. 자연의 주인으로 자처한 것이다. 시적 화자는 수간모옥에 갈등 없이 뿌리내리고 사는 주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런데 결말에서는 어조가 달라졌다. ‘공명도 날 꺼리고 부귀도 날 꺼리니 청풍명월 외에 어떤 벗이 있겠는가’라고 했다. 이 말은 자신이 공명과 부귀를 꺼려서 청풍명월을 벗한 것이 아니라 공명과 부귀가 자신을 꺼려서 어쩔 수 없이 산림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청풍명월을 벗하며 단표누항에 허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니 이렇게 일평생 살아가는 내 모습이 어떠한가’라고 또 다시 자신을 과시했다. 시적 화자는 공명과 부귀를 추구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차선책으로 청풍명월을 벗하며 안빈낙도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과시를 하면서도 공명과 부귀에 대한 꺼림직함이 마음 한 구석에 자리잡고 있다. 서두에서와는 달리 시적 화자는 어떠한 인간관계나 공동체도 형성하지 못하고 청풍명월만을 벗삼으며 살아야 하는 ‘혼자’만의 적막한 장소에 갇혀 있다.

그러면 현실지향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었던 사대부 정극인이 자신이 지향하는 세계를 홍진의 공간으로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 논의한 한시 <영회>를 다시 살펴보자.

아래론 어진 여러 신하들, 위에 명철한 임금
요순 시대와 이름을 나란히 할 만하네
가련할 손 이 못난 사람, 깊은 궁벽에 살며
우로의 깊은 은혜로 성정을 기르네

30) 에드워드 렐프, 앞의 책, 100쪽.

백 년 생애, 어느덧 내 나이 팔순
 앞서 보낸 젊은 사람 그 얼마나 많았던가
 벽에 붙은 연금방 고개들어 바라보니
 수많은 명현들 모다 귀신 되고 말았구나³¹⁾

9수로 이루어진 <영회>의 제3연과 제9연이다. 제3연은 임금을 칭송하면서 궁벽한 시골에 물러나 있는 못난 자신을 스스로 가련하게 여기고 임금의 은혜를 생각하며 성정을 기른다고 했다. 바로 “簞瓢陋巷(단표누항)에 훗튼혜음 아니헛늬”의 정서이다. 修己治人(수기치인)을 이념으로 하는 사대부로서의 시적 화자가 가지고 있는 ‘修己(수기)’의 자세를 볼 수 있다. 결말에 해당하는 제9연은 나이 팔순이 되어 뒤돌아보니 먼저 보낸 허다하게 많은 젊은 사람들,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이 모두 귀신이 되어 버렸다고 했다. 팔순을 넘기고 궁벽한 곳에 있지만 임금의 은혜로 성정을 기르며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모타 百年行樂(백년행락)이 이만흔들 엇지헛리”의 정서일 것이다.

정치현실을 흥진으로 표현한 것의 의미를 이런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사대부의 보편적 이념은 수기치인에 있는데 수기를 통해서 치인하는 것이 그들의 이상적인 이념실현이다. 그런데 치인의 이념을 실현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 이념을 실현하지 못했을 때에는 물러나 수기하는 자신의 의연한 모습을 보여 줄 필요가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 정치현실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면서 산림에서 수기하고 至樂(지락)을 즐기는 자신의 모습을 뚜렷하게 드러내 보인 것이다. 말하자면, <상춘곡>의 결말은 물러난 처지에서의 이념적 명분 찾기라고 할 수 있다. 치인의 이념 실현을 위하여 항상 정치현실을 지향하면서도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물러나 안빈낙도하는 수기의 자세를 견지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 이것

31) <詠懷>, “下有群賢上大明 唐虞三代可齊名 自憐樛櫟生幽僻 雨露恩澤養性情 …… 百歲光陰近八旬 幾多先送少年人 仰觀壁上蓮金榜 濟濟名賢化作神”

이 사대부 문학의 전형이다.

사대부들이 물러나는 명분은 정치현실은 흥진이고 자연은 무릉도원이기 때문이며, 나가는 명분은 정치현실에는 聖恩(성은)과 부귀공명이 있고 자연은 空谷(공곡)³²⁾이기 때문이다.³³⁾ 따라서 사대부들의 이상은 두 가지 이념의 완전한 실현에서 오는 것이고 이념 실현 후 여유롭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 그들의 이상적인 장소이다. 그런 면에서 <상춘곡>의 ‘흥진’은 정극인이 배척하는 공간인 듯하지만 지향하는 장소이고, 산림은 치사 후 고향처럼 살아가는 진정한 장소인 것 같지만 마음 한 편으로는 ‘흥진’을 지향하고 있는 불완전한 장소이다. 앞서 논의한 바 있는 <치사음>의 결말, “다만 몸과 마음이 아직 쇠하지 않았으니/나이를 줄여 다시금 흥진을 밟고 싶어라”³⁴⁾는 ‘흥진’에 대한 정극인의 이러한 장소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서두의 정서를 잇고 결말의 정서로 이끄는 본사를 살펴보자. 먼저 단락을 나누어 자연의 풍경과 시적 화자의 행위를 중심으로 핵심 시행과 핵심어를 정리해 본다.

- ① 物我一體어니 興이 다를소냐.
桃花杏花, 綠楊芳草, 수풀에 우는 새
- ② 閑中眞味를 알니업시 호재로다.
柴扉, 亭子, 逍遙吟詠
- ③ 이바 니웃드라 山水求景 가자스라

32) 정극인은 <子孫誠>에서 “내 운명에 어긋남이 많아 과거시험에 누차 떨어지고 공곡에 돌아와 누워 지내며, 종신토록 이렇게 지낼 것처럼 산 지가 여러 해 동안이었다.(命途多舛 屢屈科第 退臥空谷 若將終身者有年矣.”라고 했다.

33) 정극인의 가장 큰 자랑은 호남 사람으로서는 유일하게 사간원 정언을 지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작품에서 사간원을 ‘薇垣’이라 칭했다. ‘미원’은 사간원의 미칭이다. 그리고 사헌부를 ‘霜臺’, ‘分臺’라고 하는 것도 관리의 엄정함을 미화해서 표현하는 용어들로서 ‘흥진’과는 상반된 의미를 지닌다. 이런 용어들이 쓰인 작품은 <薇垣契軸詩>, <薇垣契會圖>, <不憂軒曲>, <憶分臺> 등이다. <상춘곡>에서 “功名도 날씩우고 富貴도 날씩우니”라 했는데 정극인의 공명과 부귀는 이들 관청을 중심으로 한 정치현실이다.

34) <致仕吟>, “只有身心衰未了 縮年還欲踐紅塵”

니웃, 山水求景

④ 武陵이 갓갓도다 저막이 권거이고.

踏青, 浴沂, 菜山, 釣水, 葛巾漉酒, 微吟緩步, 清流, 桃花, 武陵

⑤ 옛그제 검은들이 봄빛도 유여홀샤.

松間細路, 杜鵑花, 峰頭, 千村萬落, 煙霞日輝

본사 전체의 내용은 새봄의 풍경과 흥취이다. 서두에서 보이는 흥진에 묻힌 사람들에 대한 자기과시나 결말에서 보이는 부귀공명에 대한 미련 같은 것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그야말로 서두에서 말한 바 ‘풍월주인’의 풍월에 대한 감흥으로 시종일관하고 있다. 그렇지만 본사의 이런 내용은 서두에 나타나 있는 풍월주인의 자기과시의 배경이 되고 결사에 나타나 있는 안빈낙도의 명분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핵심어의 경우, 5단락 전체를 통틀어 정극인이 거주하고 있었던 정읍의 지명이 전혀 없다. 풍월주인으로서 거느리고 있는 풍월, 즉 자연은 작가가 실제로 몸담고 있는 현장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특정 고유명사는 전혀 없고 경전이나 고사의 인용, 일반명사만 등장한다. 시적 화자의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 역시 본인의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시어가 아니라 用事(용사)가 대부분이다. 정극인이 독서를 통해서 알게 된 ‘넷사람 풍류’를 동경하면서 자신도 그런 풍류를 즐기고자 했기 때문에 용사가 많은 것이다. 그리고 ‘시비, 정자, 청류, 송간세로, 봉두, 천촌만락’ 등도 일반명사로서 정극인이 살았던 곳의 구체적인 지명이나 건물명과 연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막연한 공간에 머물러 있어서 그가 실제로 밟디디고 이웃들과 함께 생활하고 경험하는 진정한 장소는 아니다. 그러므로 <상춘곡>의 자연은 낮익은 정경이지만 구체화하기 어렵다. 그것은 머리 속으로 그릴 수는 있어도 현실 속에는 없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는 없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공간이다.³⁵⁾ 정극인은 자신의 실제 경험이 아니라 선형적으로 터득한 가장 아름다운 자연과 그 자연 속에서의 관념적 풍류

35) 김대행, 앞의 글, 74쪽 참조.

를 동경하고 있었던 것이다.

단락③의 “이바 니웃드라 山水求景(산수구경) 가샤스라”는 이웃과 함께 풍류를 나누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 산수 역시 실재하는 곳은 아니다. <상춘곡>에서의 산수 구경의 궁극은 무릉도원이다. “저막”가 바로 그곳, 무릉도원이라 했다. “저막”는 저만큼 떨어져 있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공간일 따름이지 시적 화자가 이웃들과 어우러져 사는 장소는 아니다. 그리고 단락①의 물아일체의 흥은 단락②에서 “閑中眞味(한중진미)를 알니업시 호재로다”라고 했듯이 혼자 즐기는 것이고, 단락③에서 이웃을 끌어들이어 함께 하고자 했지만 단락④에서 다시 “微吟緩步(미음완보)호야 시넛그의 호자 안자”라고 한 것처럼 결국은 혼자의 풍류에 그쳤다. 또한 단락⑤에서 “峯頭(봉두)에 급피올나 구름소기 안자보니 千村萬落(천촌만락)이 곳곳이 버러잇넛”의 천촌만락은 자신이 융화되어 그 속에서 사람들과 어우러져 사는 생활 현상이 아니라 구름 속에서 멀찍이 바라보는 관조의 대상이다.

이렇게 볼 때, <상춘곡>의 산수는 사대부라면 누구나 꿈꾸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정경, 즉 ‘머리 속에 깊이 뿌리 내린 관념적 아름다움’³⁶⁾의 대상이다. 정극인은 정읍에서 살았지만 <상춘곡>의 배경은 상상의 무릉도원에서 정읍의 “저막”에 이르기까지, 공자 시절로부터 현재의 “새봄”까지 넓은 시·공간에 펼쳐져 있다. 이것은 시적 화자의 의식이 경험적 삶과는 멀찍이 떨어져 있는 동경의 세계에 머물러 있었음을 의미한다.

<상춘곡>의 정극인은 정치현실을 ‘홍진’에 비유하여 ‘산림’으로 물러난 명분을 찾았고, 산림의 아름다움과 산림 속에서의 풍류를 통해서 안빈낙도하는 삶의 명분을 찾았다. 따라서 ‘홍진’은 표면적으로는 배척의 공간인 것처럼 형상화되어 있지만 꺼리지(씩우지)만 앓는다면 나가고 싶은 장소이다. 반면, 산림은 여유롭고 평안한 풍류의 장소인 것 같지만 삶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관념 속에서만 살아가면서 딴 세상을 꿈꾸고 있는 추

36) 위의 글, 75쪽.

상적 공간이다. <상춘곡>에 나타난 이러한 장소의식을 통해서 볼 때, 정극인은 산림에 살면서도 마음을 부귀공명의 흥진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만의 장소를 구획하여 강렬한 장소애를 표출함으로써 실존과 자아 정체성의 회복을 완성’³⁷⁾하는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우리는 <상춘곡>에서 안빈낙도하면서 백년 행락을 누리하고자 하는 표면적 의미 이면에 숨어 있는 정극인의 강렬한 관인 지향적 의식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비슷한 시기에 창작되었지만 서로 상반된 작품세계를 지닌 것 같은 <불우현곡>과 <상춘곡>은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상춘곡>의 장소성에 나타나는 관념성이나 추상성은 선현들의 삶에 대한 선형적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유가적 실천에서 연유하는 것으로서 사대부 문학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앞서 검토한 ‘불우현’의 의미나 관인시절을 노래한 한시, 자신의 이념을 피력한 산문 등 정극인의 다양한 작품들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상춘곡>은 물러나 사는 사대부의 보편적인 명분 이면에 ‘산림’에서 진정한 장소체험을 하지 못하고 ‘흥진’을 향한 강한 집념을 지니고 있었던 정극인의 고민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마무리

정극인은 전형적인 사대부로서 올곧은 삶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일생을 보냈다. 관인의 자리에 있거나 물러나 처사로 살아갈 때나 이념적으로 흐트러지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그의 생애나 문학작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의 문학작품에는 흐트러지지 않으려는 의지 이면

37) 최현재, 「노계가사에 나타난 장소성의 양상과 그 의미」, 『한국시가연구』 제34집, 한국시가학회, 2013, 61쪽.

에 고민과 갈등이 숨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여기서는 작품에 나타나 있는 장소성을 중심으로 그 이면적 의미를 추적해 보고자 했다. 정극인 문학의 작품세계를 밝혀 줄 수 있는 핵심어로서 ‘不憂軒(불우현)’과 ‘紅塵(홍진)’를 상징하고 논의를 진행했다. ‘不憂(불우)’는 공자가 이른 바, 仁者(인자)의 마음가짐이다. 정극인은 물러나 공자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의 이념을 실현하면서 살아갈 터전으로 삼고자 ‘불우현’을 지었다. 정극인은 개인적으로는 불우현을 사적인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근심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장소로 만들고자 했고, 공적으로는 지역의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향약을 만들고 향음주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 사람들을 같은 이념의 공동체로 결속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데 불우현을 노래한 작품들에는 ‘불우’의 이념이나 추상적인 흥취만 드러나 있지 구체적인 지명이나 거기 사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나 경험은 없었다. 후대에 무성서원에 배향되는 등 지역민들의 추앙을 받기는 했지만, 정극인 자신은 오히려 불우현의 이념적 테두리 안에서 고답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다. 정극인은 불우현을 근심 없는 仁者(인자)의 삶을 지향하는 장소로 만들려 했지만, 수기치인의 이념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함에 따라 몸은 불우현에 있었지만 마음은 정치현실에 가 있었고 그로 인해 현지인으로서의 삶에 녹아들지도 못하고 관념적 이념의 세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우현은 정극인의 안빈낙도의 이념을 실현하는 장소이기는 하지만 공동체를 바탕으로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관념적·추상적 단계에 머물러있어서 진정한 장소체험에 이르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홍진’은 <상춘곡>의 첫머리에 쓰인 시어이다. 정극인이 한평생 지향했던 정치현실을 ‘홍진’에 비유한 것은 치인의 이념을 실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산림으로 물러나는 명분을 찾기 위함이었다. 부정적 의미를 지닌 ‘홍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 ‘홍진’ 세계를 자신과는 상관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추상적 공간으로 설정함으로써 정치현실에 대한 본인의 부정적

인 의식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산림에서 수기하고 지락을 즐기는 자신의 모습을 뚜렷하게 드러내 보인 것이다. 서사에 이어서 본사에서는 아름다운 ‘산림’ 속에서의 풍류를 감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데 이는 ‘홍진’과 같은 정치현실을 떠나 안빈낙도하는 자신의 삶을 과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산림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서의 풍류는 안빈낙도하는 삶의 명분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한편, 작품의 결말에서는 공명과 부귀가 자신을 꺼려서 물러났다고 했다. 물러난 처지에서 ‘청풍명월’ 외에 어떤 벗이 있겠느냐고 적막감을 드러내면서 정치현실에 대한 강한 집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면에서 <상춘곡>의 ‘홍진’은 배척하는 공간인 듯하지만 지향하는 장소이고, ‘청풍명월’, 즉 산림은 치사 후 고향처럼 살아가는 진정한 장소인 것 같지만 마음 한 편으로는 ‘홍진’을 지향하고 있었다. 사대부들의 이상은 수기와 치인이라는 두 가지 이념의 완전한 실현에서 오는 것이고 이념 실현 후 여유롭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 그들의 진정한 장소일 터인데 정극인은 그런 진정한 장소체험에는 이르지 못하고 ‘혼자’의 세계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상춘곡>의 ‘산림’은 상상의 무릉도원에서 정음의 “저막”에 이르기까지, 공자 시절로부터 현재의 “새봄”까지 넓은 시·공간에 펼쳐져 있지만 시적 화자의 경험적 삶과는 멀찍이 떨어져 있는 동경의 세계에 머물러 있다. ‘산림’은 여유롭고 평안한 풍류의 장소인 것 같지만 삶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관념 속에서만 살아가면서 딴 세상을 꿈꾸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볼 때, 정극인에게 ‘不憂軒(불우현)’은 <상춘곡>에서 이른 바 ‘홍진’을 떠나 평안하게 살아가는 ‘不憂(불우)’의 장소이면서도 ‘홍진’ 세상으로의 진출에 대한 집념에서 오는 ‘憂(우)’의 공간이기도 함을 확인하였다. 반면, ‘홍진’은 정극인이 배척하는 공간이지만 수기치인의 이념을 완전하게 실현할 수 있는 장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불우현’과 ‘홍진’의 장소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정극인은 전형적인

사대부로서 수기치인의 이념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한평생을 성실하게 생활했지만 반쪽의 목표 달성에 그침으로 인해 어디에도 안주하지 못하고 고민하면서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정극인이 세상을 떠난 것은 81세인데, 바로 한 해 전인 80세 때에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말을 타고 서울로 올라가 사례하고 시폐를 논하자 임금이 술을 하사하여 위로하고 장려했다. 이에 돌아와 말하기를 “이제 나의 뜻이 이루어졌다.”³⁸⁾라고 했다 한다. 정극인은 이 말에 그의 한평생 고민과 소망을 담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극인의 고민과 소망은 그의 다양한 문학작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관인문학이었고 송축가로도 연주된 경기체가와 이와는 상반되게 사림문학으로 발달한 가사를 활용하여 단표누항의 이념뿐만 아니라 부귀공명에 대한 강렬한 집념을 보여주었다. 또한 한시의 경우에도 관직생활의 흥취와 소망을 노래한 시와 강호한정을 노래한 작품이 공존하고 있어서 정극인이 매우 역동적인 의식세계를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관직 생활에 대하여 이만큼 적극적으로 문학작품을 창작한 작가는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다양한 작품세계를 대상으로 한 장소성 논의를 통하여 사대부문학의 보편성 속에서 정극인 문학이 지닌 개별성을 다각적인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구명할 수 있었다.

이 글은 장소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정극인 문학의 개별성과 보편성을 구명해 보고자 했다. 다만, 논의를 정극인의 문학작품에 국한했기 때문에 정극인 문학의 장소성이 지니는 사대부 문학으로서의 보편성을 구명하는 데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동시대 다른 작가의 작품과의 비교 연구, 시가사적 관점에서의 논의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대해서는 이 글의 논의를 토대로 하여 후고에서 상론해 보고자 한다.

38) 黃胤錫, 앞의 글, 정극인, 앞의 책, 62쪽 참조.

참고문헌

- 김광조, 「강호시가의 작중공간 설정과 의미」, 『한국시가연구』 제23집, 한국시가학회, 2007, 118~125쪽.
- 김대행, 「상춘곡 : 추상의 의미」, 『고시가연구』 제5집, 한국고시가문학회, 1998, 1~15쪽.
- 박경주,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 경기체가 장르의 정서 변화에 대한 고찰」, 『고전문학과 교육』 24,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2, 8~81쪽.
- 에드워드 렐프 저,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옮김,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39쪽에서 요약·정리한 것임.
- 윤석산, 「〈상춘곡〉 구조 연구」(1998), 『고전문학연구』 제13집, 한국고전문학회, 1998, 69~91쪽.
- 이-푸 투안 저, 구동희·심승희 옮김, 『공간과 장소』, 대운, 2007, 7~8쪽 참조.
- 정극인, 김익두·허정주 옮김, 『不憂軒集』, 문예원, 2013.
- 정재찬, 「담화 분석을 통한 가사의 장르성 연구」, 『선청어문』 제21집, 서울대 국어교육과, 1993, 212~221쪽.
- 최현재, 「노계가사에 나타난 장소성의 양상과 그 의미」, 『한국시가연구』 제34집, 한국시가학회, 2013, 61쪽.
- 한창훈(1999), 고전시가 교육론 서설, 〈백록어문〉 제15집(제주대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109~123쪽.
- 한창훈, 「경기체가의 형성과 변모를 파악하는 하나의 시각」, 『백록어문』 제14집, 제주대 국어교육학과 국어교육연구회, 1998, 47~50쪽 참조.

<Abstract>

Double-sidedness of ‘Buruheon’ and ‘Hongjin’ - Focusing on placeness of Jeong Geuk-In’s literature

Choi, Sang-eun

This paper discussed about ‘Buruheon’ and ‘Hongjin’ to uncover Jeong Geuk-In’s literary world with a focus on placeness. He tried to create a place to live together in the community without worry. However, the results of this review of his works, there was only exposed ideological ideal and abstract interest, but no concrete scene or experience of life to live with the local residents. He seems to be living a highbrow life in the ideological scope of ‘Buruheon’. Therefore, there is a place of realization of his ideals, but also ideological·abstract space. Because, he did not find his self-identity there. ‘Hongjin’ in <Sangchungok> seems to be a space that is being rejected, but oriented place. ‘Sanlim’ seems to be a real place like home, but there is an ideal world far away from experience life, and ideological·abstract space. In this sense, Jeong Geuk-In seems to live with worry and unable to settle anywhere due to the inability to reach an ideological goals. In other words, Jeong Geuk-In lived in the ‘sanlim’, but he was a strong officer oriented person.

Key words : Buruheon(不憂軒), hongjin(紅塵), sanlim(山林), placeness, ideal, reality

투고일 : 2015년 1월 15일, 심사 : 1월 19일~2월 12일, 게재확정 : 2월 12일